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공동협력

전북·세종·제주·강원특자도교육청 특별법 업무담당자 모여 교육자치 실무협 구성 사전회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세종시교육청에서 전북·세종·제주·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별법 업무담당자 13명이 모여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특별법의 교육 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 간 협력 조직이다. 이는 특별법 담당 주무 부서장 4명이 공동회장단을 맡고, 업무 관계자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1일차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약(안) 검토 및 교육특례 제·개정 추진경과 협의를, 2일차에는 2023년도 실무협의회 운영방안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향후 상호협력을 통한 교육특례 발굴과 유관기관 대상 설득 논거개발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윤영임 정책기획과장은 "시·도교육청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재정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특례 등 교육특례 발굴 및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세종시교육청에서 전북·세종·제주·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별법 업무담당자 13명이 모여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단계 KB21 '계속 지원' 선정

전북대 '지역혁신 위한 미래복지 전문인력양성 교육연구단'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역혁신을 위한 미래복지 전문인력양성 교육연구단'(단장 윤명숙·사진)이 사업추진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4단계 BK21(두뇌한국21) 사업 중간 평가에서 '계속 지원'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앞으로 4년 동안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사업비를 지원받아 복지 분야에서 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에 나선다.

이 대학 사회복지학과는 지난 1997년 호남충청지역 국립대학 사회복지학과 최초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이후 많은 교수 및 연구자 등 사회복지 분야를 선도하는 우수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지역 혁신을 통한 융·복합, 글로벌 사회복지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사회 연계와 국제공동연구에 탁월한 실적을 보였고,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전북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의 위탁 운영을 통해 산·학·연이 함께하는 연구인력 배출에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학과는 지난 3년간 대학원생들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가 3.4배 증가했고, 특히 우수국제학술지(SSCI) 게재가 16배 증가하는 놀라운 연구능력을 보였다.

또한, 15개 팀 학생들이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등 성과가 이어졌고, 졸업생 100%가 사회복지 전문분야로 취업하는 등 경쟁력도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 역시 지난 3년 동안 연구비 수주가 7.8배 증가했고, 교수 1인당 11.9편의 국내외 논문을 게재했다. 우수국제학술지 논문게재는 기존보다 4배 늘었다.

윤명숙 단장은 "그동안 대학 본부의 BK21사업에 대한 혁신적 지원과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교수님들의 헌신이 맞물려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며 "계속 지원 선정으로 대학원생들에게 글로벌 연구역량증진 및 우수 연구 창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지금 큰 화두, 교권 회복"

서 교육감, 직원조회서 "교권·학생인권 균형과 조화, 학력 신장에 역점 둘 것"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일 열린 직원조회에서 "이번 2학기에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학력 신장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며 "전북의 학생들이 실력과 올바른 인성을 가진 미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일 열린 9월 직원조회에서 "이번 2학기에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학력 신장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며 "전북의 학생들이 실력과 올바른 인성을 가진 미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이후 맞춤형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면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학교와 본청 및 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9월 1일부터 전북에듀페이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고, 스마트기기도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며 "각 학교에서는 정책의 디테일을 살려 세심하고 완벽하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화두는 교권 회복"이라면서 "그간 여러 부서의 협조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소신껏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

전주대 음악학과

전주대학교 음악학과는 지난달 28~30일 2박 3일 일정으로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취업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취업을 준비하는 음악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장과 실무자를 통한 실질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속 무대예술 전문인력의 특강과·학생들의 무대 기술 실습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은 현장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무대, 기계, 음향, 조명, 기획 등의 세부 과목들을 배웠다.

음악학과 김동하(4년) 학생은 "졸업 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같은 공연장에서 무대 전문인력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학교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줘 너무 좋았다"며 "전당의 감독님들께 직접 수업을 듣고, 현장의 시설들로 실습하니 금방 이해가 되고 참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주용 교수는 "평소 학생들과 상담하면 졸업 후 진로로 연주자의 길뿐 아니라 공연장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LINC 3.0 사업단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대학 인권센터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전주대 인권센터

전주대학교 인권센터는 '2023년 전북지역 대학 인권센터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및 협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전북지역 16개 대학 인권센터가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권 보호 관련 업무 교류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대학 인권센터의 업무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대학 내 성평등 문화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교류 △전북지역 대학 인권센터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학 내 인권 관련 업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북지역 대학 인권센터의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인권 보호 및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인권센터 실무자의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

전주대학교 인권센터장 소현성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전북지역 대학 인권센터 실무자들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며 "대학에서 지역사회로, 학생에서 시민으로 인권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인권센터는 인권영화제, 인권문화축제, 인권여행 등 도내 학생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에듀테크 에듀토크'

서 교육감, AI·에듀테크 교원과 간담회

서거석 교육감은 1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AI·에듀테크 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따르면 '에듀테크 에듀토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9월부터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는 가운데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야별 대표 교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I 선도학교, 디지털 선도학교, 에듀테크 선도학교, 학교로 찾아가는 스마트기기 활용 직무연수 선도교사단, 에듀테크 지원단, (가칭)미래교육 캠퍼스 교사지원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현장 교원들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연장선으로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매 결제 간소화 △AI 디지털 교과서 등 AI 교육 정착 방안 △연수 이수 및 출강 제도 개선 △교사용 태블릿 보급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소프트웨어 구매 결제 간소화는 학교 정보 예산 내 수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명시해 확보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별 맞춤형 학습정보 및 전략을 제공하고, 개별화 된 학습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보조교사 역할을 한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AI융합교육과정 설계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전북미래교육은 현장 교원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현장 교원의 열정과 노력이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에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래 AI 에듀테크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은?'이라는 주제로 박지훈 교사(대전과학고등학교)의 특강도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총 742명… 20일까지 성적조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일 누리집(www.jbe.go.kr)을 통해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총 1,111명이 지원, 합격자는 초졸 54명·중졸 121명·고졸 567명 등 총 742명이다. 합격률은 77.13%로 제1회 검정고시 합격률보다 3.67% 감소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79세·중졸 79세·고졸 80세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중졸 12세·고졸 13세로 집계됐다.

합격증서는 우편 수령 신청자는 2~3일 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 방문 수령 신청자는 오는 15일까지 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1층 고객지원실에서 수령할 수 있다.

성적조회는 오는 20일까지 도교육청 누리집[교육소식-성적확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고객지원실, 각급 학교 행정실,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군산 초등교사 투신… 진상 명확히 규명해야"

전교조 전북지부

군산시 동백대교 주변 해상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 모 초등학교 교사가 투신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 교사가 투신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승진문제와 관련한 직장내 갈등이 있었다는 것. 앞서 전교조는 오랜 기간 비민주적 학교 문화의 뿌리가 승진제도에 있음을 지적하며, 승진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내부형공모제 확대 등을 주장해 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단순한 갈등이 투신으로 내몰았다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다"며 "업무 분장, 민원 대응과 마찬가지로 인사 관련해서도 부당한 압력이나 괴롭힘, 갑질, 나이에 따른 차별행위, 따돌림과 관리자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교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엄정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군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오전 8시께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대교 인근에 있던 A씨의 차량에서 유서 등을 발견했고, A씨가 대교 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올 하반기 예산업무 담당자 실무교육

내년 본예산 편성 일정 안내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일 교육연수원에서 2023년도 하반기 예산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예산업무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일정 안내 △예산편성 실무 △특별교부금 운용 요령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이해 △재정투자사업 심사의 이해 △2023년 하반기 교특회계 재정집행 추진 계획 등이다.

김필중 예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예산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